

#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 <49> 으뜸가는 정진이란

중생이 부처가 되는 길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각의 바다를 건너야 도달할 수 있는 마나년 여정이다. 이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조금도 게으름을 피우서는 안 된다. 한 걸음 한 걸음 끊임없이 부처님 세상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곤란이나 역활을 당하더라도 화를 내지 않고 참아내는 마음이 있어야만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

화를 내지 않고 참아내는 마음, 이 참 마음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정진이다. <선가귀감> 49장에서는 말한다.

守本真心 第一精進  
'본디 참마음'을 지키는 것이 으뜸가는 정진이니라.

'본디 참마음'은 부처님 마음을 말한다. 헛생각을 떠나 있는 것이 '참'이요 신령스럽게 밝은 것이 '마음'이다. 헛생각은 오염된 중생의 마음이고, 오염된 마음을 떠나 신령스레 밝게 빛나고 있는 것은 부처님 마음이다.

아직 중생이지만 부처님의 삶을 좇아서 부처님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야마랄 으뜸가는 정진이다. 정진(精進)을 <선가귀감> 전문주해에서도 "정(精)은 부처님 마음에 조금도 다른 잡념이 섞이지 않는 것이요, 진(進)은 그 마음에서 조금도 물러나지 않고 그 마음상태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다(精不離心, 進不還退)"라고 하였다. 서산 스님은 말한다.

若起精進心 是妄非精進 故云 莫妄想 莫妄想 懈怠者 常常望後 是自棄人也

정진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이는 헛된 생각이나 올바른 정진이 아니다. 그러므로 분양 선사가 이르기를 "헛생각 하지 말라 헛생각 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게으른 사람은 늘 뒤를 바라보는데 이는 스스로 공부를 포기하는 사람이다.

'정진하는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은 부처님 세상을 따로 두고서 그곳으로

## 참마음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지켜나가는 것

## 자꾸 게으름 피우면 모든 공부 거기서 중단

가겠다고 마음 내는 중생들의 생각이 다. 그러나 이 생각은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무명으로 인(因)하여 중생의 시비 분별로 만들어진 것이니, 허깨비와 같은 '나'와 '부처님 세상'이라는 경계에 집착하는 중생들의 '헛생각'에 불과하다. 중생의 생각으로 무엇을 성취하려는 것은 허망한 것으로서 중생계에 머물러 벗어나지 못하니 올바른 정진이 아니다. 그러므로 분양(汾陽 762-823) 선사는 누가 무슨 말을 물든지 한결같이 대답하기를 "헛생각 하지 말라 헛생각 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올바른 정진이란 부처님의 참마음을 잊지 않고 그 근본을 지켜 '부처님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참된 정진이니라. 그밖에 따로 정진한다는 생

각에 집착하면 이것은 헛생각으로서 참된 정진일 수 없다. 그래서 "정진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이는 헛된 생각"이라고 한 것이다. 정진이란 끊임없이 물이 흐르듯 부처님의 참마음을 끊임없이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므로, 게으름을 피우면서 자꾸 공부를 뒤로 미루는 것은 스스로 공부를 포기하는 사람이다. 정진이 중단되면 모든 공부는 거기에서 그쳐버리기 때문이다.

올바르게 부지런히 정진하는 사람들의 삶은 그 자체가 '부처님의 삶'이므로 열 가지 이익이 있다고 한다. 첫번째, 사탄 소견을 지닌 사람은 어느 누구라도 그를 굴복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부처님 공부를 부지런히 끊임없이 하는 사람은 부러지지 않는 금강같은 부처님의 보배 지혜를 지녔기 때문이다.

두번째,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이 그를 거두어 보살피는 것이다. 부처님 공

부를 하는 사람은 부처님의 지혜를 이어받을 부처님의 아들이나 마찬가지로 기 때문이다. 세번째, 하늘의 신장들이 언제 어느 곳이든지 이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것이다. 이 사람은 뒷날 부처님이 되어 모든 중생을 제도하실 귀하신 분이므로 하늘의 신장들이 늘 부처님처럼 우러러 보고 존경하기 때문이다.

네번째, 한번 들은 법은 잊어버리지 않고 늘 마음속에 담아놓는 것이다. 부처님의 법은 한번 인연을 맺어놓으면 절대로 잊어지지 않고 시절인연이 도래하면 반드시 뜻을 활짝 피우기 때문이다.

다섯번째, 아직 듣지 못했던 법을 지금 들을 수 있는 것이다. 부지런히 공부하는 사람은 부처님 법에 대하여 싫증

을 내지 않고 언제나 즐거워하므로 잊혀지지 못하던 법을 지금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번째, 말문이 트이는 것이다. 부지런히 공부하여 모든 법의 이치에 통달하므로 다른 사람이 묻는 대로 거침없이 답변하여 어떤 의심도 풀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일곱번째, 고요한 삼매를 얻는 것이다. 몸과 마음이 고요하여 세상살이 어떤 일이라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기 때문이다.

여덟번째, 있던 병도 사라지고 괴로움도 없어지는 것이다. 부지런히 정진하는 사람은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리므로 언제나 몸이 가볍고 편안하여 있던 병도 사라지고 온갖 괴로움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아홉 번째, 먹는 음식을 언제나 잘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부지런히 정진하는 사람은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어 건강하므로 어떤 음식이라도 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열번째, 진흙탕 속의 푸른 연꽃과 같아지는 것이다. 부지런히 정진하는 사람은 생사의 역경에 처해 있더라도 진흙탕 연꽃처럼 그 마음이 맑고 순수하여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존경하는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불유교경(佛遺教經)>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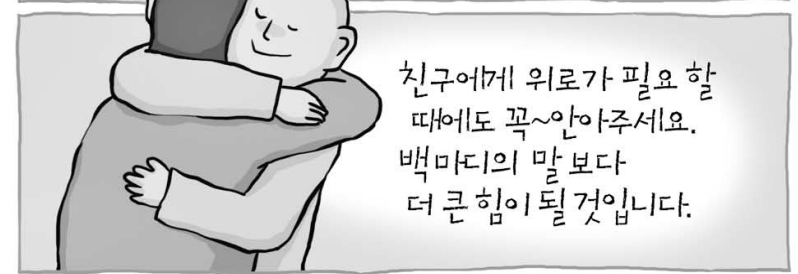
"그대 비구들이여, 부지런히 정진하면 어떤 일도 어려울 것이 없다. 이 때문에 그대들은 부지런히 정진해야만 한다. 비유컨대 오랜 세월 작은 물방울이 쉬지 않고 떨어지면 단단한 돌도 뚫리듯 부지런히 정진하면 반드시 성불할 것이다. 만약 수행하는 사람이 자꾸 게을러져 공부를 하다가 그만두면, 이는 마치 불씨를 얻으려고 나무를 베빌 때 아직 나무가 뜨거워지기도 전에 나무 비비던 일을 그만두는 것과 같다. 이런 식으로는 아무 불씨를 얻으려고 해도 불씨는 얻을 수 없듯 끝내는 성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 이를 정진이라 한다."

■ 원운 스님(송경사 인월암)

# I Love Buddha

용정운(www.buddhailust.org)

## 진심으로 안아주기



## 한입에 소옥~ 불교 상식

### 시방삼세(十方三世)

절집에서 예불할 때 이런 말을 읊조립니다. "시방 삼세- 제방참해- 상주일체 승가야중~" 여기서 시방 삼세란 뜻은 무엇일까요? 불자들이 가장 흔하게 쓰는 불교용어, '시방삼세(十方三世)' 하지만 그 연원과 깊은 뜻은 잘 알지 못하면서 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시방삼세는 시간과 공간을 한꺼번에 초월한 개념입니다. 모든 것은 한꺼번에 존재하며 그 인과 역시 윤회를 하며 시공간에서 서로 교류하며 적용될 수밖에 없는 개념을 뒷받침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먼저 시방이란 용어는 동서남북 사방과 건(乾)·곤(坤)·간(坎)·손(巽)의 사우(四隅) 또는 북서 남서 북동 남동의 사우 및 상하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그런 점에서 시방세계는 곧 공간적 개념입니다. 이에 반해 삼세(三世)는 과거, 현재, 미래, 전세, 현재, 내세 등 시간의 흐름을 뜻합니다. 과거세(過去世)

는 지나간 때를, 현재세(現在世)는 현재 있는 때를, 아직 오지 않은 때를 미래세(未來世)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삼세는 일체의 존재가 생멸 변화하는 과정에서 시간적으로 각각 차별을 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삼세는 법의 상태에 따라 나누기도 합니다. 법이 생겨서 작용하는 때를 현재라 하고, 법이 없어서 작용이 끊어진 때를 과거라 하며, 법이 아직 생겨나지 않고 작용하지도 않은 때를 미래라고 합니다. 삼세는 불교의 가장 근본원리라고 할 수 있는 인과응보(因果應報)에 관한 것을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124)

###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 2부 70장 일념지경(一念持經), 아인돈진(我人頓盡)

32상을 애착 갈구만 할 것인가 정말 혜능은 독창적이다. 그의 32상 해석은 그동안의 우리 해석과 다른 길을 간다.

여래는 보통 사람의 평범한 얼굴로 우리 곁에서 늘 있으니, 다시 오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경전은 이 역설 하나를 고구 정녕 알리고자 한다.

그런데, 그런데 혜능은 이 통상적 해석에 담긴 진부함과 태만을 뒤뚱수에 불이 번쩍 나게 두들긴다.

### (혜능 13-4)

"三十二相者 是三十二清淨行 於五根中 脩六波羅蜜 於意根中 脩無相無爲 是名三十二清淨行 常脩此三十二清淨行即得成佛 若不脩三十二清淨行 終不成佛 但愛著如來三十二相 自不脩三十二行 終不見如來"

"32상이란 32가지의 청정(淸淨)한 행동을 말한다. 오근(五根)의 다섯 감각기관으로 육바라밀, 여섯 가지 피안으로의 수행을 해나가고, 의근(意根), 즉 의식의 수준에서는 무상무위(無相無爲)를 닦아 나간다. 이를 32 청정행이라고 한다. 늘 이 32청정행을 닦아야만 즉, 성불을 성취할 수 있다. 32청정행을 닦지 않으면 종내 성불을 이룰 수 없다.

여래의 32상을 애착 갈구하되, 스스로 32상을 뒤지 않으면 종내 여래를 볼 수 없다."

### (부연 13-4)

그는 하나도 실전, 둘도 실전을 다그친다. 내가 앞에서 적은 역설은 그저 한가한 회론(會論)의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 재치는 있으나, 깊이는 없는 구두선이 되고 말 우리가 다분한 것이다. 혜능은 이 사태를 180도 돌려세워 놓는다. 그는 이렇게 깨우치려는 듯하다. "32상이란 32개의 청정한 행동이다. 여래의 표징같은 한가한 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네가 묵숨걸고, 불교인으로서, 법답게 닦아야 할 평생의 사업이다. <금강경>이 '32상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다름 아니라, 그 32의 청정행, 브라마 처리야를 찬양은 하되, 열망만 할 뿐, 그러나 그것을 행동으로 성취시키려 하지 않는 태만과 퇴전(退轉)을 경고한 것이다."

그렇다. 책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위대한가. 이불 속의 활갯짓으로 하자면 전화를 한 손바닥에 요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일에 나서서 것은 그렇지 않다. 한발 나서는데 온갖 장애의 복병들이 발목을 잡고, 길을 가로막는다. 사업을 하는 자는 위대하다. 글을 읽고 쓰는 사람들은 자칫 무책임

하게 떠들기 쉽다. 실무에 관련된 일일 경우, 남의 제안과 시도에 쉽게 한 톨 결정과 미비를 찾아 헤집어대는 못된 버릇을 삼가는 연습을 해야 한다. '남의 눈에 티끌을 보면서 제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중용>은 "말은 내 행동을 돌아보고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자신이라면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를 돌아본 다음, 입을 때는 조심스러움이 인품과 능력의 가치를 가르는 큰 갈림길이

중에 6바라밀을 닦으라'이고, 하나는 '의근 중에 무상무위를 닦으라'이다. 6바라밀은 감각을 길들이는 훈련이고, 무념무위의 수련은 상념-의지를 길들이는 훈련인데, 이 둘은 수레의 두 바퀴나 새의 두 날개처럼 협력 동시해야 한다.

6바라밀은 익히 들어보셨을 터인데 <대승신론>의 '수행신심분(修行信心分)'의 설법을 들려주기로 한다. 처음 바라밀이 아시 다시피 '보시'이다. 줄 줄 모르면 이 문에 들

서 해방시켜 준다. 만일 붓다의 위대한 진리를 구하는 자 없으면, 자기가 아는 한도 내에서 가르침의 방편을 배플다. 이때 명예와 이익, 존경따위를 바라고 이 일을 해서는 안된다. 오직, 자리아타(自利利他)의 정신으로, 회향보리(廻向菩提)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

이것 하나 녀념(念) 늘 마음에 새기며 사는 것 하나 쉽지 않다, 평생 끌어안고 가야 하는 수행인데, 그 청정행을 닦는 마음 가집이 바로 무상무위(無相無爲)이다. 무상

이다. 1차적 즉물적 계산이 계산의 전부라고 생각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혜능 13-5)

"世間重者 莫過於壽命 菩薩爲法 於無量劫中捨身命 分與一切衆生 其福雖多 亦不如受持此經四句之福 多劫捨身 不了空義 妄心不除 元是衆生 一念持經 我人頓盡 妄想既除 言下成佛 故知多劫捨身不如持經四句之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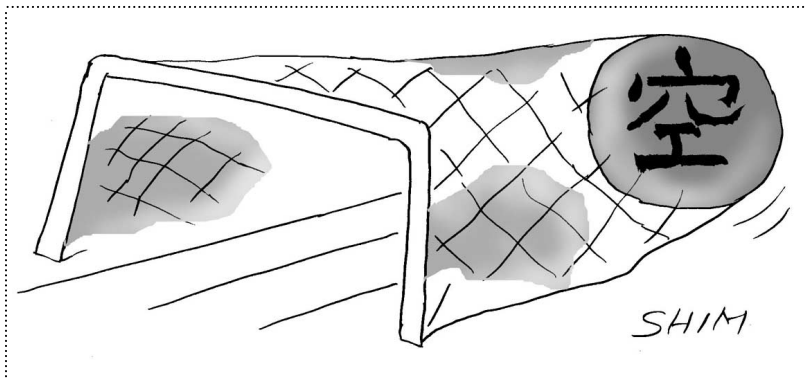
"세간에서 중시하는 것은 목숨만한 것이 없다. 보살이 법을 위해 무량한 겁의 세월 동안 목숨을 내놓고 일체중생에게 나누어 주는 데서 얻는 그 복덕은 아주 많다. 그러나 이라도 이 경전의 사구계를 수지하는 복덕만 못하다. 여러 겁에 걸쳐 목숨을 내놓더라도 공(空)의 뜻을 모르고 망심을 제거치 않으면 여전 중생인 것이다. 일념으로 경전을 지니고 아(我)와 인(人)의 상이 돈진(頓盡), 동방 사그라지면, 언하에 성불하리니, 그래서 알겠다. 여러 겁에 몸을 내놓는 것이 경전 사구를 지님만 못하다는 것을..."

### (부연 13-5)

보시는 어렵다. 그러나 그것이 최종적 가치는 아니다.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덕성으로도 남의 재난에 곧 걸어들어주고 나서서 용기로도 아직 잔은 채워지지 않았다. 최종관문은 '자기 존재의 최종적 이해'에 도달하는 것이다. 보시를 하는 나도 없고, 보시를 받는 너도 없다. 구하는 것도 내 손이 아니고, 구할받는 사람도 그 얼굴을 볼 수 없다. 안팎이 비어있는 마음, 즉 공(空)의 '태도' 혹은 '자세'로서 반야바라밀은 완성된다. 응무소주이생심(應無所住而生其心), 혜능이 문득 들었던 그 처음의 소리가 불교, <금강경>의 최종적 설법이었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 32상을 애착 갈구만 할 것인가



어설 수 없다. 자기것만 챙기는 인색한 성격으로 불법을 구하는 것은 모래를 써서 밥을 짓는 것과 같고 러시아로 가지면서 남쪽으로 가수를 들리는 것과 같다. <신론>에는 세 가지 보시가 적혀 있다. 만일, 누구든지 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가진 재물을 여건에 따라 배풀지, 그래서 자기 속의 인색함과 탐욕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기쁨에 같이 기뻐한다. 재난과 핍박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감당할 수 있는 한도에서 그들을 무(無)로, 두려움에

이런 거듭 말하지만, 나의 욕망과 예고의 이해관계를 통해 사물을 가르고 편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무위란 나의 욕망과 이해관계에 입각해 사물을 편견적으로 이기적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하는 훈련을 의미한다. 망연, 쉽지 않다. 그러나 훈련해 나갈 수 있고, 그만큼 그는 자유와 평정을 얻는다. 작은 포기는 더 큰 보답으로 돌아온다. 진짜 계산을 잘 하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무상무위를 적극적으로 수련하려 할 것